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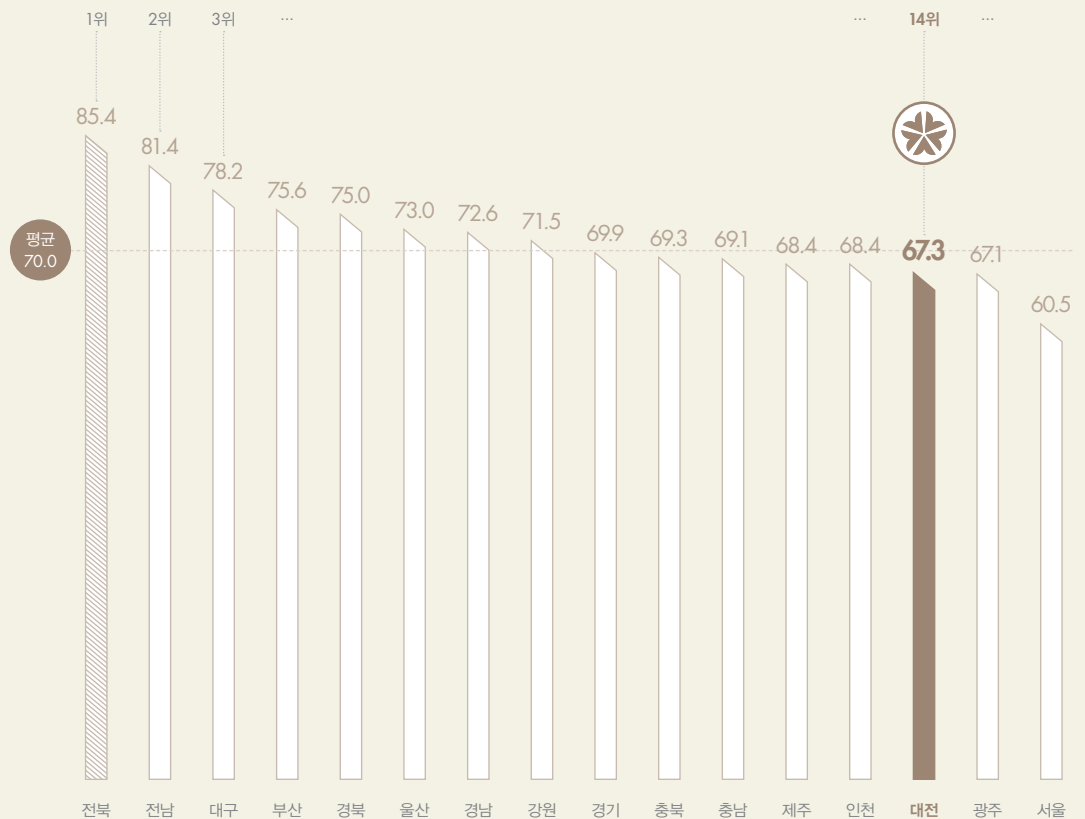
대전 성평등지수는 ‘합격점’ ‘안전’ 분야 성평등 수준은 ‘낙제점’

대전 ‘안전’ 분야 성평등지수 16개 시·도 중 ‘14위’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역별·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비교하여 성평등 수준이 취약한 분야를 파악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여성 정책 수립, 정책 우선순위 설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¹⁾ 따라서 대전의 분야별 성평등지수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취약 분야에 주목해야 한다. 대전의 경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성평등 수준 ‘상위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나,²⁾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대전시 ‘안전’ 분야 성평등지수에 대해 5년간 변화를 점검하고 타 시도와 비교·분석 등 ‘안전’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2017년 기준 ‘안전’ 분야를 시·도별 순위로 살펴보면, ‘안전’ 분야는 16개 시·도 중 14위(67.3점)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³⁾ 이는 전국 평균(70.0점)보다 2.7점 낮고, 분야 1위 지역인 전북(85.4점)과 비교해도 18.1점 낮은 수준이다. 분야별 점수로 비교해보면, ‘안전’은 ‘가족’(58.5점, 16개·시도 중 8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전국 지역성평등지수 ‘안전’ 분야 현황(2017년 기준)

단위 : 점(완전 성평등=100.0)



1) 주재선 외(2018), 『2018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p.

2)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류방식은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상대적 수준을 기반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각 등급 내 시도 순서는 가나다 순서임(2017년 기준 상위 지역: 광주, 대구, 대전, 제주/중상위 지역: 부산, 서울, 인천, 전북/중하위 지역: 강원, 경남, 울산, 충북/하위 지역: 경기, 경북, 전남, 충남)

3) ‘상위권’ 복지·보건·문화·정보 분야, ‘중상위권’ 경제활동·의사결정·교육·직업훈련·가족 분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8개 분야) ① 경제활동, ② 의사결정, ③ 교육·직업훈련, ④ 복지, ⑤ 보건, ⑥ 안전, ⑦ 가족, ⑧ 문화·정보

*(안전 분야 세부 지표) ①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성비, ②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비율

*지표는 성비로 파악

*완전 성평등한 상태를 100점으로 산정하며, 지수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성평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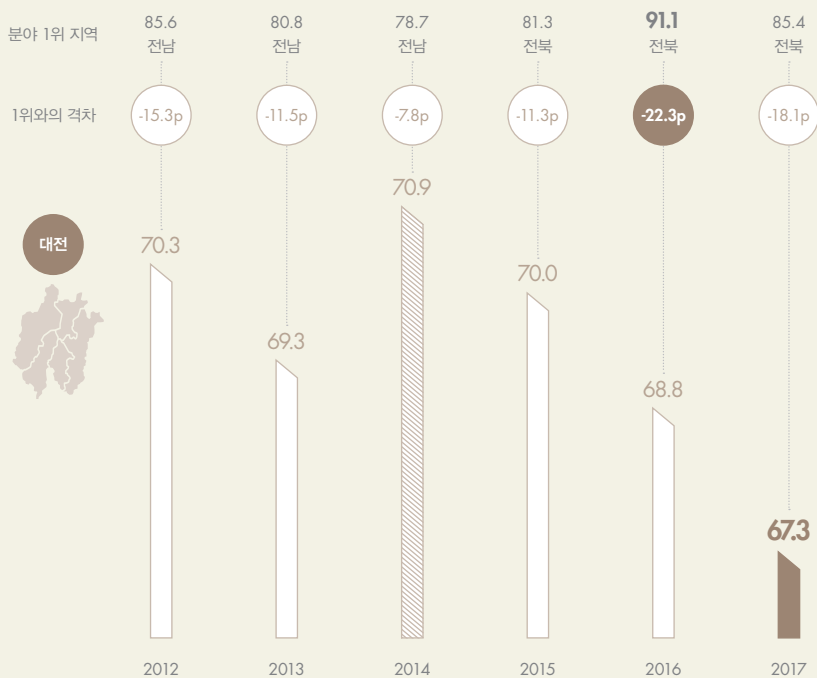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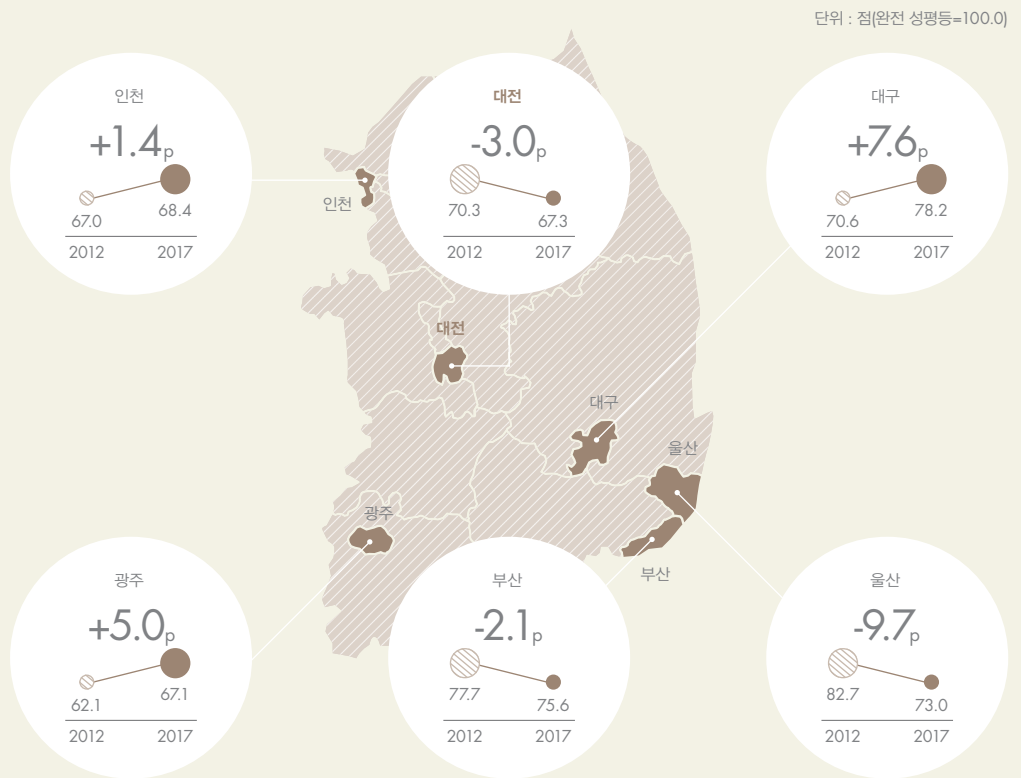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 『2018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하락한 대전
'안전' 분야 성평등지수,
5년 전보다 3.0점 낮아**

대전시 '안전' 분야 성평등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6대 광역시 및 1위 지역과 추이를 비교했다.

대전 '안전' 분야 비교 추이

대전의 '안전' 분야 성평등지수 값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70.3점에서 2013년 69.3점으로 소폭 하락 후 2014년(70.9점) 상승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하락 추이(2015년 70.0점, 2016년 68.8점, 2017년 67.3점)를 보였으며, 2016년은 분야 1위 지역(전북, 91.1점)보다 22.3p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의 폭이 가장 컸다. 6대 광역시의 '안전' 분야 성평등 수준을 2012년과 비교해 본 결과, 감소 양상을 보인 지역은 울산, 대전, 부산이었으며, 상승 양상을 보인 지역은 인천, 광주, 대구였다. 대전은 2012년 70.3점에서 3.0점 하락해 67.3점에 그쳤으며, 이는 울산(2012년 82.7점, 2017년 73.0점, 2012년 대비 -9.7점) 다음으로 많이 떨어진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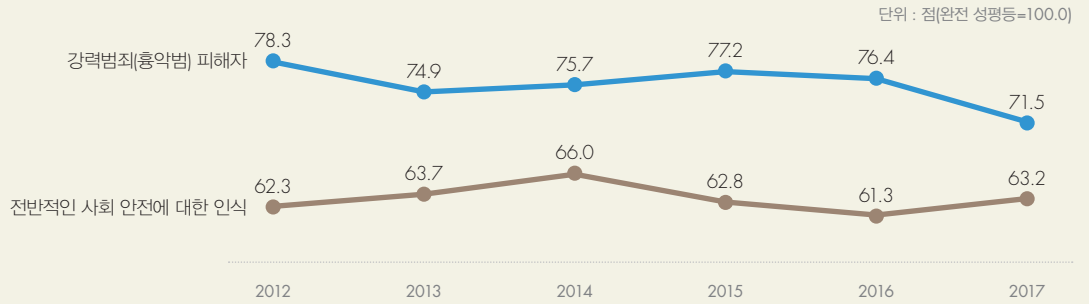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출처: 여성가족부, 「2018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여성은 남성보다 '덜 안전하다' 느끼고, 강력범죄 피해에 노출된 비중 높아

지역성평등지수의 '안전' 분야를 구성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과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등 2개의 세부 지표에 대한 성평등지수 및 성별 변화 추이를 살펴봤다.

대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및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성평등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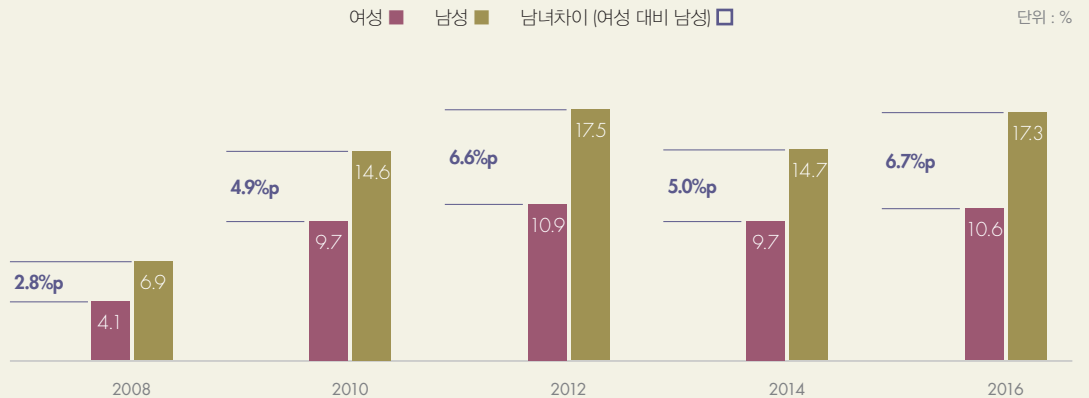
대전의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지표의 성평등 수준은 2012년 62.3점에서 2017년 63.2점으로 0.9점 상승했다. 반면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지표는 2017년 71.5점으로 2012년(78.3점)과 비교해 6.8점 상승했다.



*출처: 여성가족부, 「2018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대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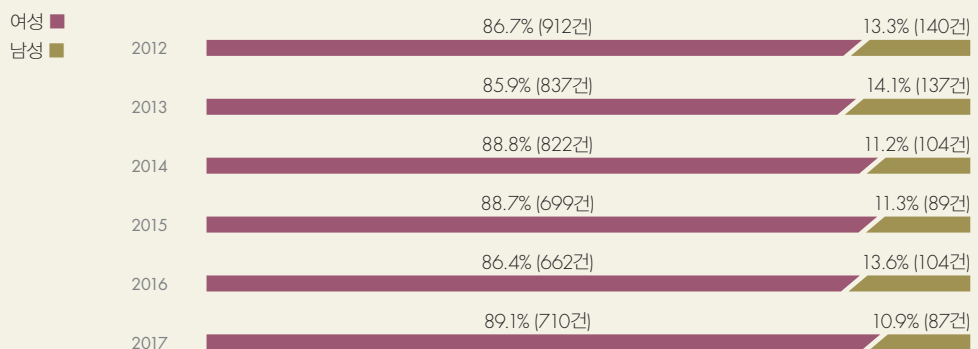
2008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사회 전반에 대해 '안전하다'고 한 여성 4.1%, 남성 6.9%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2.8%p 높았다. 이후 2010년(여성 9.7%, 남성 14.6%), 2012년(여성 10.9%, 남성 17.5%)까지 격차가 심화되다가 2014년(여성 9.7%, 남성 14.7%) 다소 완화됐다. 그러나 2016년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여성(10.6%) 비율은 남성(17.3%) 대비 6.7%p 낮았으며, 남녀 간 인식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매우 안전'과 '비교적 안전'의 합임
 *2008년~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 이후는 13세 이상임
 *원데이터: 통계청 「사회조사」

대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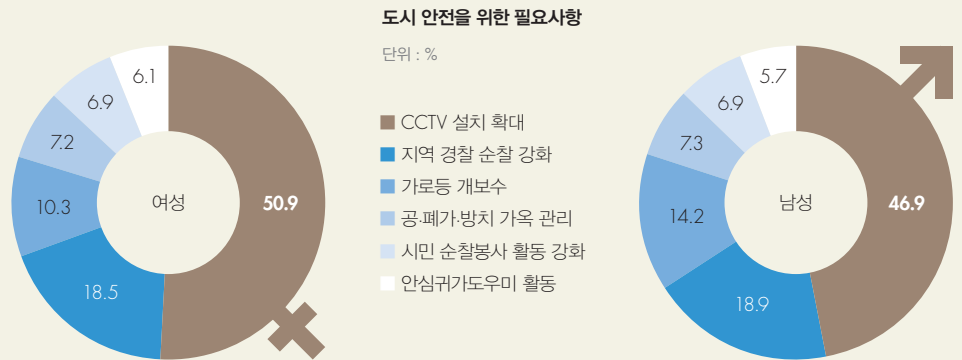
대전의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86.7%에서 2013년 85.9%로 다소 감소했으나 2014년(88.8%) 다시 증가했다. 이후 미미하지만 줄어드는 양상(88.7%, 2016년 86.4%)을 보이다가 2017년 89.1%로 전년 대비 2.7%p 상승하면서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강력범죄 여성 피해 비율을 보였다.



*원데이터: 경찰청, 「범죄분석」 내부자료

여성은 'CCTV 설치 확대' 요구가 높고, 남성은 '가로등 개보수' 요구가 높아

대전시가 실시한 2018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여성은 'CCTV 설치 확대'(50.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지역 경찰 순찰 강화 18.5%, 가로등 개보수 10.3%, 공·폐가·방치 가옥 관리 7.2%, 시민 순찰봉사 활동 강화 6.9% 순으로 나타났으며, 안심귀가도우미 활동이 6.1%로 가장 낮았다. 남성은 'CCTV 설치 확대' 비율이 46.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지역 경찰 순찰 강화(18.9%), 가로등 개보수(14.2%), 공·폐가·방치 가옥 관리(7.3%), 시민 순찰봉사 활동 강화(6.9%), 안심귀가도우미 활동(5.7%) 순이었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4.0%p 높게 'CCTV 설치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안심귀가도우미 활동'(남성 대비 여성 +0.4%p)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여성보다 3.9%p 높게 '가로등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꼽았으며, 이어서 '지역 경찰 순찰 강화'(여성 대비 남성 +0.4%p)로 나타났다.



*기타 항목에서 남성은 0.1%로 나왔으나 여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제외함
*출처: 대전광역시, 「2018 대전의사회지표」

대전 여성가족정책센터 # 젠더 콜로키움 # 3.8 세계 여성의 날 # 성평등 인식

2019 제1회 젠더 콜로키움 (통합 12회)
밋밋한 사고에 주름을 잡다

청년세대 젠더 이슈 픽 - 남성성과 혐오

여성 및 가족 이슈와 담론을 파악하고, 전문가 역량 강화 및 신진 연구자 발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젠더 콜로키움이 지난 2월 19일 2019년 첫 번째 문을 열었다. 이날 발표된 주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강인화 씨의 『한국 징병제와 국민/남성: 1945-1960』와 최영지 씨의 『소비사회와 청년세대의 '여성혐오'』였다. 강인화 씨는 한국사회에서 징병제의 보편화 과정과 남성성 형성에 주목했으며, 병역이행자들 대다수가 징병제의 '피해자'이자 '옹호자'로 기능하는 모순과 양면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지 씨는 '여성혐오' 현상의 소비사회의 영향과 이로 인해 나타난 양상을 분석했으며, 소비사회가 청년세대의 개인화 및 타자화에 기여하고 있고, 이것이 혐오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강인화_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최영지_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TEA & TALK
“성평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대전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성평등 또는 인권유리 업무 담당자로부터 각 기관 내 성평등 인식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올해 센터에서 연구 예정인 『성평등 인식 실태조사(가안)』의 설문조사 내용 및 운영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일시 2019년 3월 8일(금) 14시
장소 대전세종연구원 1층 회의실

일정

구분	시간	내용
Opening	14:00 ~ 14:10	참석자 및 내용 소개 주혜진(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Talk	14:10 ~ 15:30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와 '2019년 성평등 인식조사'에 대한 의견 교환